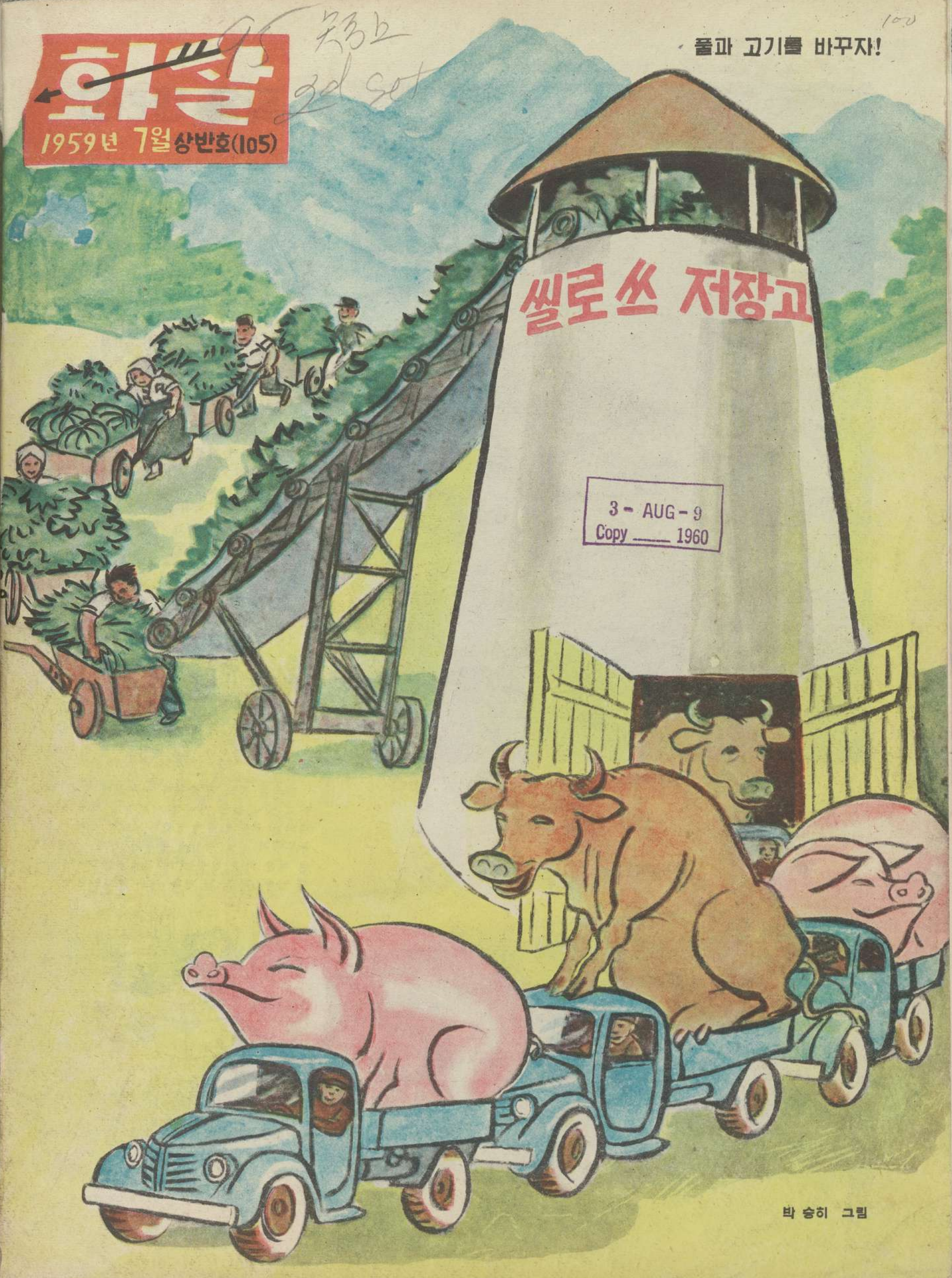
화살

1959년 7월 상반호(105)

풀과 고기를 바꾸자!



3 - AUG - 9
Copy ____ 1960

박 승히 그림

박 승허 그림

—심해에도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좀 보세요

요지 부동한 지도 일'군

송 용남 그림

닻을 내리고

유 항림

강원도 수산 관리국장 김 의국은 수산 일'군들의 용어를 빌어서 말한다면 《출어 일수가 아주 낮은》 지도를 하여 왔다. 언제나 사무실 안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 앉아서는 하부 일'군들을 자주 회의에 부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화통에 매달린다.

회의가 만능이라고 믿는 그는 회의에 대해서 남달리 타산하는 바가 있다.

첫째로는 회의를 자주 소집하면 그만큼 자주 지도를 했다는 《근거》가 남으니 좋고, 협의제를 강화했다고 할 수 있으니 좋고, 만일의 경우엔 책임을 하부 일'군들의 발언에 돌릴 수 있으니 참 좋다.

둘째로는 현장을 일일히 돌아 보고서 실정을 료해하며 자신이 머리를 써서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귀찮은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으니 또한 좋다.

세째로는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일'군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망신을 줌으로써 본보기를 할 수가 있으니 더욱 좋다. 사실 그의 욕설은 유명했다.

이런 타산과 이런 필요로 회의를 자주 열군 했는데, 회의와 회의 사이에는 전화에 매달리였다.

그런데 도 수산 관리국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며는 관리국 산하의 일'군들은 수화기를 귀에서 한 뼘쯤 떼여 놓고서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로 되여 버렸다. 편지에 문안 격으로 국장의 전화는 의례 욕설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욕설이 끝난 뒤에 귀에 바싹 가져다 대고 들어도 늦지 않은 일이다.

관리국 지도 일'군들이 사무실에 닻을 내리고 앉아 있는 사이에 어선들도 자주 닻을 내리고 부두에 매여 있었다. 도내 국영 수산 부문에서 어로 작업에 동원된 기계 어선의 년 평균 가동 일수는 147일에 불과하며 대형 전착선들은 년 평균 겨우 26일이였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참! 관리국에서 지도를 하기가 대단히 편리하겠군!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은 전화가 통하지 않아서 지도를 할 수 없을 텐데…》

려권 없는 낙지

《심해 어업, 원해 어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구호로는 웨치는 강원도 수산 관리국 지도 일'군들은 준비를 갖추어 그것을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직할 대신에 《원해에는 풍랑이 사납다》느니 《심해에는 고기가 없다》느니 하는 구실만 내세웠다.

그러면 풍랑이 사납지 않은 연해의 중 소 어업은 활발히 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 번에는 《중 소 어업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느니 《어로 조직이 복잡하다》느니 하는 구실을 내세웠다. 심해 어업도 중 소 어업도 안하고서 그저 고등어나 명태의 대 어군이 나타나면 그때는 봉창을 단단히 하리라고 벼르고 있을 뿐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천 수산 사업소 로동자들이 당의 붉은 편지를 토의하면서 200건의 호망을 생산에 도입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관리국에서는 기계적으로 100건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100건에 해당한 자재도 7개월간이나 해결해 주지 않았다.

작년 8월에는 낙지가 참 잘 잡혔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퍽 큰 어군이 들이 밀렸던 것이다. 자재만 더 있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었다. 각 수산 사업소들에서는 자재를 추가로 신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관리국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

《국가 계획에 예견되여 있지 않으므로 자재를 해결할 수 없음.》

낙지는 얼마든지 있는데, 자재를 더 주지 않아서 더 잡을 수 있는 것도 못잡는 안타까운 심정을 어떤 어로 일'군은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낙지가 한창 잡히는 바다 속을 물끄럼이 들여다 보면서 하는 말이—

《낙지들아 듣거라! 어느 놈이 계획에 들어 있는 놈이고 어느 놈이 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 놈이냐? 다음부턴 우리께로 오려거든 우선 려권을 내고 관리국에서 사증을 받은 후에 계획에 포함시켜 놓고서 오너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땅에 상륙시킬 수 없으니, 계획에 없는 낙지들은 썩썩 물러가거라!》

바다를 낀 곳에서

고성군 인민 위원회 농업부에서는 전체 농업 협동 조합의 79%나 차지하는 반농 반어 협동 조합 수산반에 대한 지도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

최 영근 그림

—왜 나를 몰라 보세요

어느한 부두'가에서

— 상점에는 왜 생선이 없습니까?
—명태나 고등어 철이 아니니까

송 용남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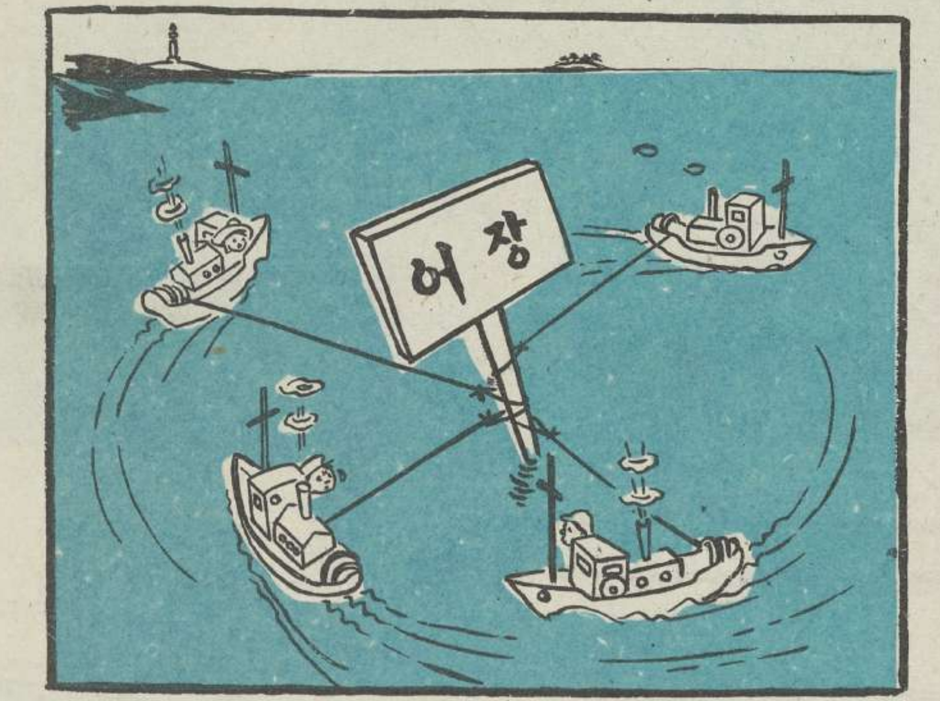
투기'군

박 승히 그림

—고기 떼가 언제나 나타날지 점이나 한 번 쳐 주시요

일부 수산 일'군들은 국한된 좁은 어장에만 매달리여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지 않고 있다.

소견이 좁다



최 영근 그림

강원도 수산 관리국 탐색선은 보통 어선보다도 속력이 굼떠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주객 전도

원 광수 그림

박수 갈채

안 성수

장기판 옆으로 모여 든 사람들은 의례 훈수를 하게 마련이고 경기를 하는 옆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응원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탁구대 옆으로 모여 든 사람들이 약간 색다른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 동무와 박 동무가 마주 서서 탁구를 치고 있는데, 좋은 기회를 얻은 박 동무가 힘껏 내치는 뽈은 면바로 들어가 꽂혔다. 김 동무는 그 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박 동무는 박수 갈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면으로부터 들어 오는 핀잔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람두, 원! 그렇게 모질게 치진 말라는데두…》

《벌써 두 알이나 깨뜨렸구먼…》

《이 탁구뽈은 평양 일용품 공장 제품이거든!》

다음부터는 박 동무나 김 동무에게 좋은 기회가 돌아올 때마다 옆에서 보고 섰는 응원'군들은 소리를 지른다.

《가만히 치라구, 가만히…》

그런데도 경기에 열중한 박 동무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생기자 또 한 번 힘껏 내치는《파오》를 범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위에서 핀잔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박수 갈채가 일어 났다. 뽈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박수 갈채는 모름지기 박 동무의 묘기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깨지지 않은 뽈에 대한 찬사인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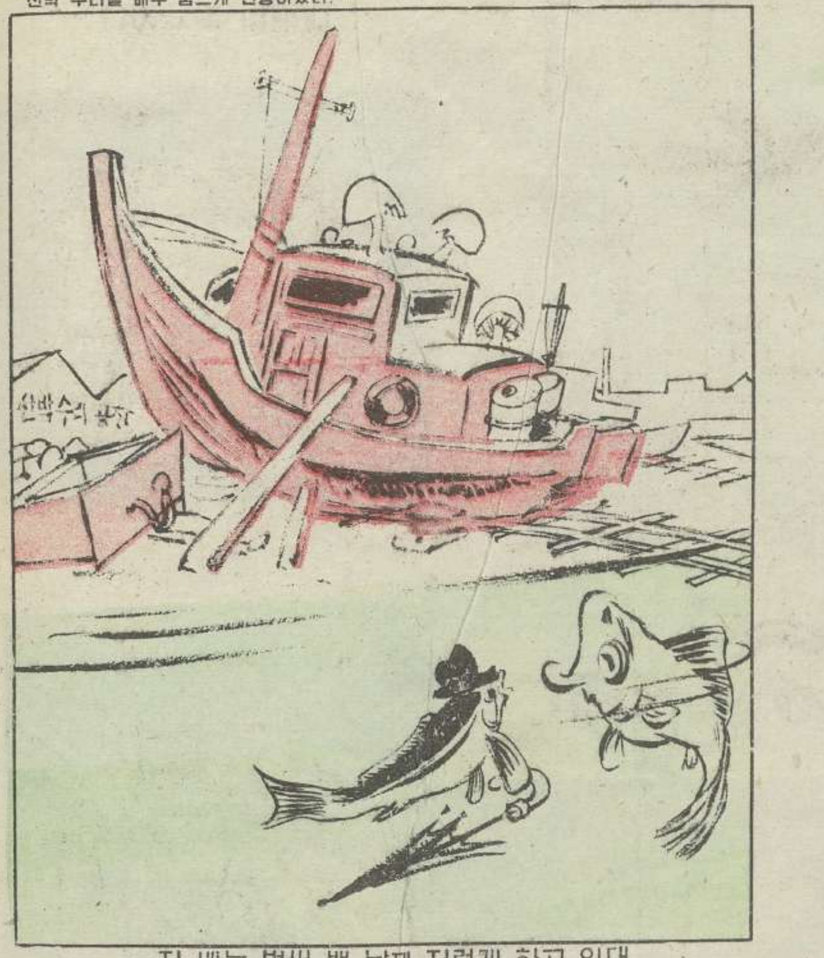
평양 일용품 공장 일'군들이여! 당신들이 깨지지 않는 탁구뽈만을 생산한다면 언제나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도 없다.

간판만 큰 양어장

조선 경비대 우편함 (42) 7915호
김 우선 그림

원산 선박 수리 공장에서는 지난 기간에 선박 수리를 매우 굼뜨게 진행하였다.

송 용남 그림



—저 배는 벌써 백 날째 저렇게 하고 있대
—고기가 물을 떠난 격이로군!

소보다 더 우둔한 사람

일부 소발구공들은 발구'길은 잘 닦지 않고 소만 때려 모는 현상이 있다.

자강도 장강군 종남 림산 사업소
김 성배 그림

작은 일 같지만…

함남도 정평 요업 공장
리 수길 그림

날아가는 세멘트

이것은 절대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도시와 농촌에서 눈부신 건설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주 간단하게 세멘트와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누구든지 먼저 해주 세멘트 공장 울타리 밖에 커다란 창고를 지어 놓고 다만 지붕을 뚫으고 거기에다 커다란 자루를 몇개 매달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루가 옛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요술이라도 부리느냐고 물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자루에 세멘트가 가뜩가뜩 차게 될 것입니다.

암만해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약간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

해주 세멘트 공장 앞에서 뻐스를 내리면 뭉기뭉기 연기가 뭉쳐 나오는 수 많은 굴뚝들이 먼저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연기 아닌 먼지가 굴뚝에 따라 까만색, 회색 등 모두 다른 색들이랍니다.

△ 세멘트 직장에서

회색 연기 나는 직장이 세멘트 직장인데 온통 세멘트 천지입니다.

여기서는 육중한 밀이 여러개 돌면서 원료와 세멘트를 분쇄합니다.

《불을 때는데도 없는 데 밀마다 달려 있는 굴뚝에서는 무슨 연기가 저렇게 나갑니까?》

《연기가 아니구 세멘트랍니다》

《세멘트요?》

설비들이 밀폐되여 있지 못한데다 흡진장치도 잘 하지 않아서 잡을 수 있는 많은 세멘트를 공중으로 날려 보내고 있답니다. 직장장 동무의 계산에 의하면 이 세멘트 직장에서 비산되는 세멘트만도 하루에 30톤 내지 50톤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멘트만 창고에다 붙잡아 넣으면 매일 같이 아름다운 농촌 문화 주택 30동을 지을 수 있는 세멘트를 공짜로 얻게 되는 셈이지요.

△제조 직장에서

하얀 연기 뿜는 커다란 굴뚝이 있는 직장, 여기가 소성로입니다.

불을 때니까 연기려니 했더니만 여기서도 종합 원료의 5%가 연기와 섞여서 비산되고 있습니다. 흡진 장치로 더러 잡고 있으나 이 직장에서 비산되는 보드러운 가루도 하루에 30~40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석탄 밀에서

까만 연기 나는 여러개의 굴뚝뿐만 아니라 이 공장 부근에만 가면 사방에서 연막처럼 석탄 가루가 날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가 아니라 전부 보드러운 석탄 가루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서는 날고 있는 이 석탄 가루를 굴뚝으로 빨리 뽑아 내기 위해서 굴뚝 아래에서 일부러 불을 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뚝도 자주 막히지 않고 가루도 빨리 날려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기서도 수십톤의 석탄을 문제없이 잡을 것이 아닙니까.

△포장 직장에서

무포장 상차

뚜껑 없는 화물차에 세멘트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올 때 여기에는 잠시동안에 세멘트의 바다가 생깁니다.

박하에서

지대 (종이 자루)에 세멘트를 넣는 작업입니다. 직장장 동지의 말씀이 100 가운데서 80은 포장하고 20은 흩어지거나 날려 보낸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흡진 장치도 없습니다.

씨로 콤베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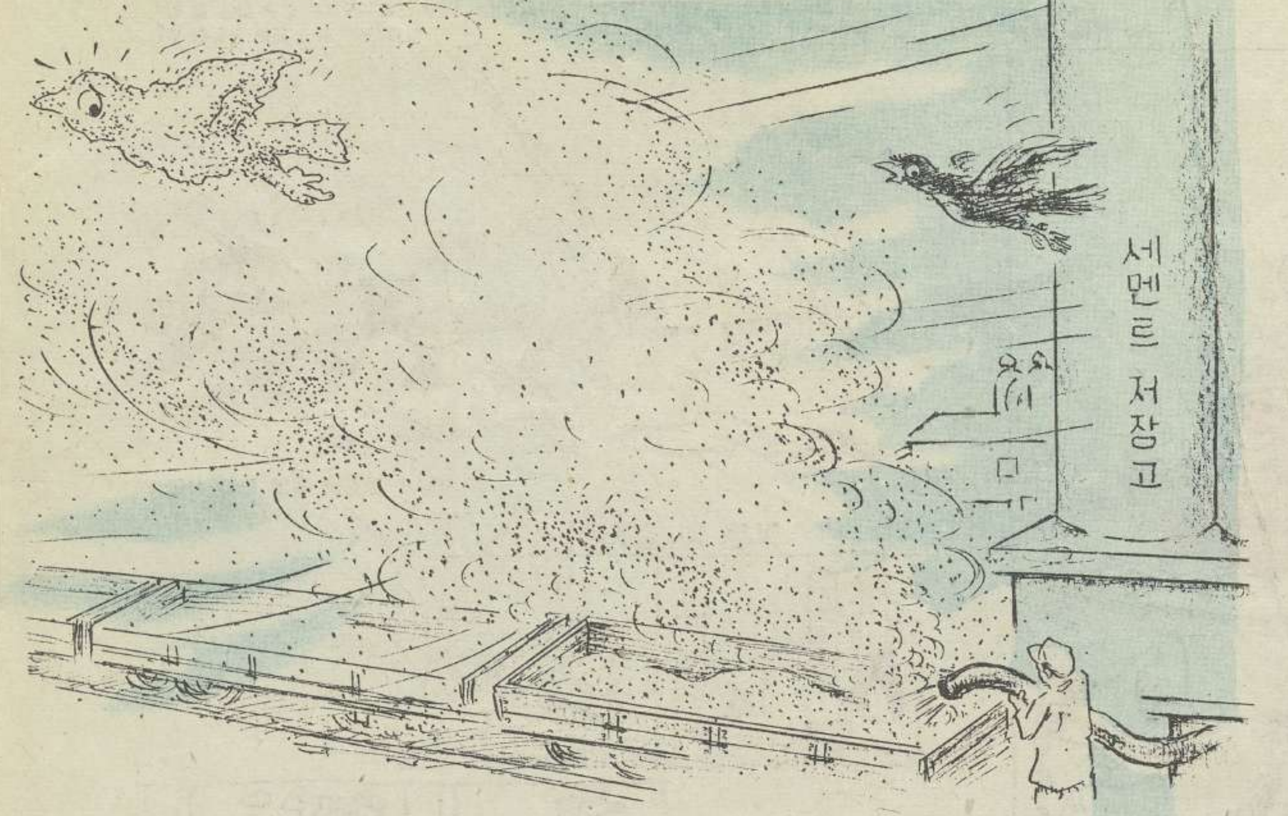
땅크에서 세멘트를 뽑아서 박하로 보내는 작업입니다. 비산이 심해서 작년 10월에 배풍 장치를 했으나 한번도 못써 보고 오늘까지 수많은 세멘트가 그냥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공장에서 매일 같이 비산되는 세멘트를 몽땅 잡으면 하루에 100여동의 농촌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만한 세멘트가 날마다 랑비되고 있는 셈이지요.

이 처럼 지난 날 이 공장 지배인이나 기사장이 눈을 딱 감고 날아가는 것은 모두 연기라고 세멘트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이 공장 일이자 우리의 일인데 언제까지나 날아 가는 세멘트를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우리라도 서둘러서 창고를 지어야 할까 봅니다.

김 상애

마동 세멘트 공장 상공을 날다가



백 인균 그림

대책이 필요하다

백 인균 그림

기중기의 하소연

기중기—너 때문에 낮잠만 자게 됐구나

백 인균 그림

세멘트 배

6월 17일

해주항 부두에서는 화물선에 세멘트를 싣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구경삼아 배안을 들여다 보더니

《아니 저 배는 세멘트로 만들었네…》

《세멘트로요? 배도 세멘트로 만드나요?》

지나가던 사람이 같이 들여다 본다.

알고 보니 남포시 건설 트레스트가 해주 세멘트 공장에서 170톤의 세멘트를 인수하고 상선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한다.

배와 부두 사이에 널판자로 다리를 놓고 낭떨어지기 같은 배 속에다 굴려 떨어뜨린 것이다.

첫날 작업에서 인수한 세멘트의 4분의 1도 못 실었는데 한 50포대를 터뜨려서 부두'가와 배의 바닥에 깔아 버렸다.

상선 작업을 아주 능률나게 조직했다고 생각했더니만 숫한 세멘트를 가져가기도 전에 랑비하고 흩어진 세멘트를 주어 모아 놓느라고 숫한 시간을 랑비하였다.

김 상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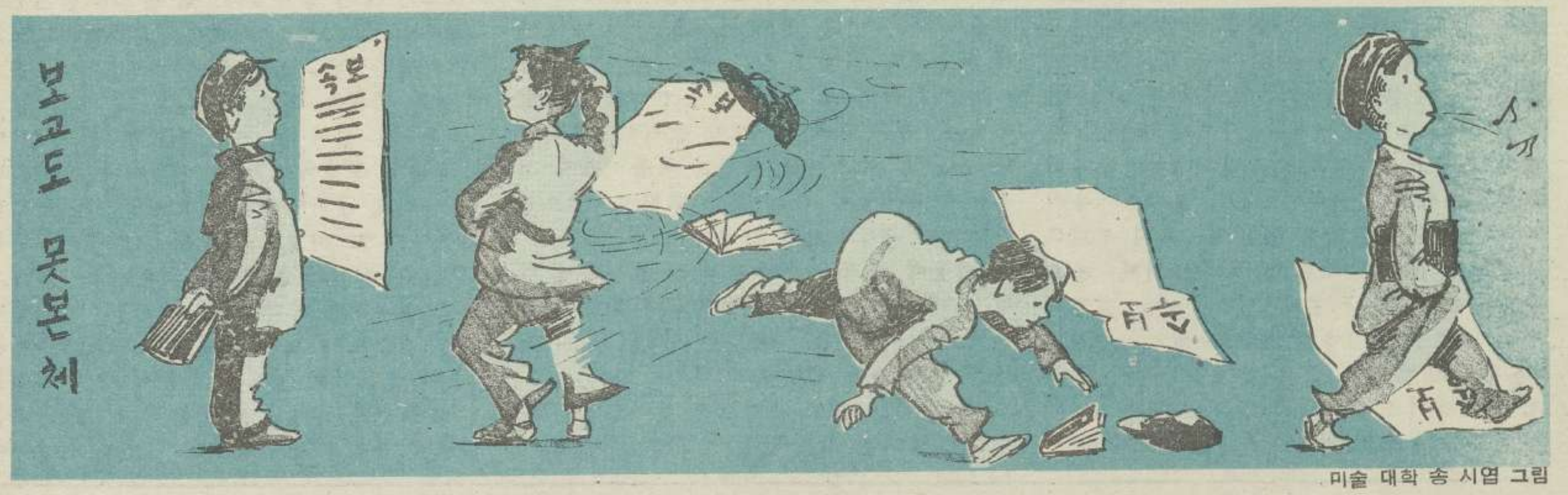
《친절한 청년》

평양 제 45호 《직》 리 만성 그림

회의를 통해서만 현실을 알려는 일'군

최 영근 그림

보고도 못본체



미술 대학 송 시엽 그림

국내산 원료는 무진장한데…

원 광수 그림

미술 대학 정 영만 그림

이웃의 충고

연산군 일'군들! 우리 신평군과 연산군은 이웃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다 같이 산이 많고 농호도 비슷하고 조합 구성도 거의 같고 한 마디로 모든 조건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당신네 군은 우리 군보다 훨씬 못사니 우리는 이웃에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 군은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목축업 발전에 모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모두 축산을 위주로 해야 할 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간 지대에서는 산을 뜯어 먹으라는 당의 정책을 받들어 인민들에게 축산업 발전의 의의를 해석 선전하여 그들을 축산업 발전에로 동원시켰습니다. 우선 많은 가축들을 기를 수 있도록 확고한 사료 기지를 만들기 위해 100호당 칡산은 118 정보, 방목지는 111 정보, 씰로 쓰는 600톤, 전초는 120톤씩 작만했고 선진적인 사양 관리로 돼지는 두당 12.8두의 새끼를, 소는 100두당 61두의 새끼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군에선 우리와 꼭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큰암퇘지는 우리의 40%, 조선소는 우리의 60%, 토끼는 우리의 22%, 가금은 우리의 77%, 돼지 새끼의 생산성은 우리의 3분의 1도 못 되며, 소도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지니 어이된 일입니까? 그러니 축산에서 얻은 수입이 우리의 4분의 1 밖에 안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산간 지대에서는 축산을 위주로 하라는 당의 정책을 모르고 평지대처럼 알곡 위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상부에서 축산 위주로 하란 지시가 있었음에도 그 이웃에선 아직도 잘 동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축산에 관심이 없습니까? 당신네 군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아시는 모양인지요, 우리가 그 군에 갔을 때 보니 그 군 사람들도 고기를 잘 잡숫드만요, 땅만 내려다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산을 좀 쳐다 보십시오. 거기에는 고기들이 주롱주롱 열리는 고기나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고기나무에 달려 붙으십시오, 열매를 땅 한군데서만 따려 하지 말고 산에서도 따고 들에서도 따고 강에서도 따십시오. 농민들이 축산의 유리성을 인식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끔, 해석 설복과 구체적인 조직 지도 사업을 해야 그 고기나무에 고기들이 가지가 휘도록 열릴 것입니다. 사료도 준비 안하고 돈사도 군'적으로 수요량의 8% 밖에 안 만들어 놓고 공동 가축을 많이 기르란 구호만 부르고 있다지요? 그러나 그 구호 뒤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 가축으로 가축은 모아 놨지만 돈사가 없어 한지에서 비'바람을 맞히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못한다니 돼지들이 어떻게 살이 찌고 늘어 가겠습니까? 심지어 그 군 상공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공동 가축은 모아 놨지만 돈사가 한 간도 없어 소처럼 새끼로 목을 매여 기른다니 돼지들이 살이 도로 내리지 않으면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웃에 있지만 동냥은 하지 않을테니 걱정 말게》하고 말할진 모르지만 사회주의 건설자로서 이웃이 못사는 데 대해서 어찌 걱정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들도 우리처럼 잘 살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한 수밖에 모르는 사람

법동군 인민 위원회 농산 지도원이 도에서 세포군 인민 위원회 농산 지도원을 만나 물었다.

《그 군에선 작년에 분배가 얼마씩이나 돌아갔나?》

《우리야 땅이 척박한데다 현금 수입도 얼마 안돼 분배량이 많자 못했네. 약수리 같은 데는 호당 겨우 55원 가량 밖에 안됐네》.

《왜 그런가, 산도 많이 리용하는데?》.

《산은 12%를 리용하고 있지, 거기에다 산채도 심고 양봉도 하고 머루 다래도 따고….》

《12%만?.》

《그리구 그 외에도 참나무를 찍어서 들것채와 도끼자루도 만들어 팔아서 현금 수입을 얻고 있네.》

《그건 누가 발기했나? 참 훌륭한 발긴걸》.

《우리 군 인민 위원장이 발기했네, 이렇게 선동하더군, 산을 뜯어 먹으란 건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고.》

《음—! 산이 못 쓰게 되도록 나무를 란도벌해서 들것채로 팔아 먹었다는 데가 바로 당신네 군이였구만?! 그리구 그 유명한 발명자가 또 바로…당신들은 당에서 산을 리용하라는 방침을 잘 못 리해하고 있네, 산을 리용하라는 건 산림 자원을 파괴함이 없이 식수도 하고 나무도 보호 육성해서 산을 더 울창하게 만들면서 공지에다 파수도 심고 칡산도 만들어 사료를 얻고 또 방목을 해서 가축들을 대량적으로 기르고 아까시아 같은 걸 심어 양봉도 하고 약초나 산채도 재배해서 수입을 얻으라는 전데… 그래 아까 약수리에서 현금 수입이 55원이라는 것도 나무 팔아 얻은 수입까지 합한 것이 그거겠군?》

《그렇네.》

《알곡 분배는 어떤가?.》

《그것도 시원치 않네, 땅이 좋아야지! 가장 수확이 높다는 옥수수마저 제일 잘 되는 데가 정당 900 키로구 보통 3~400 키로라니까!》

《그런데두 그런 메마른 땅에만 매달리구 있나?》

《그래서 알곡 수확을 높여 보려고 작년에 100%루 랭상모를 해 보지 않았나.》

《100%를?! 불가능한데두 막 내려 먹였겠군? 그러니 모가 얼어 죽은데까지 있지, 정당 반 톤도 안나는 매마른 땅에만 매달려 토끼도 하나 안기르는 조합이 5개 조합이나 된다지. 닭은 군'적으로 겨우 3000수 밖에 안 기른다지, 그러면서도 거의가 인공 부화도 안하고 있지, 젖소도 백산리 같은데선 아직까지 1마리 밖에 안 기른다니…산도 많겠다, 커다란 평강 농장도 가까이에 있겠다, 종축 해결이나 사양 관리법을 배우는데도 아주 유리한데…사료는 얼마나 파종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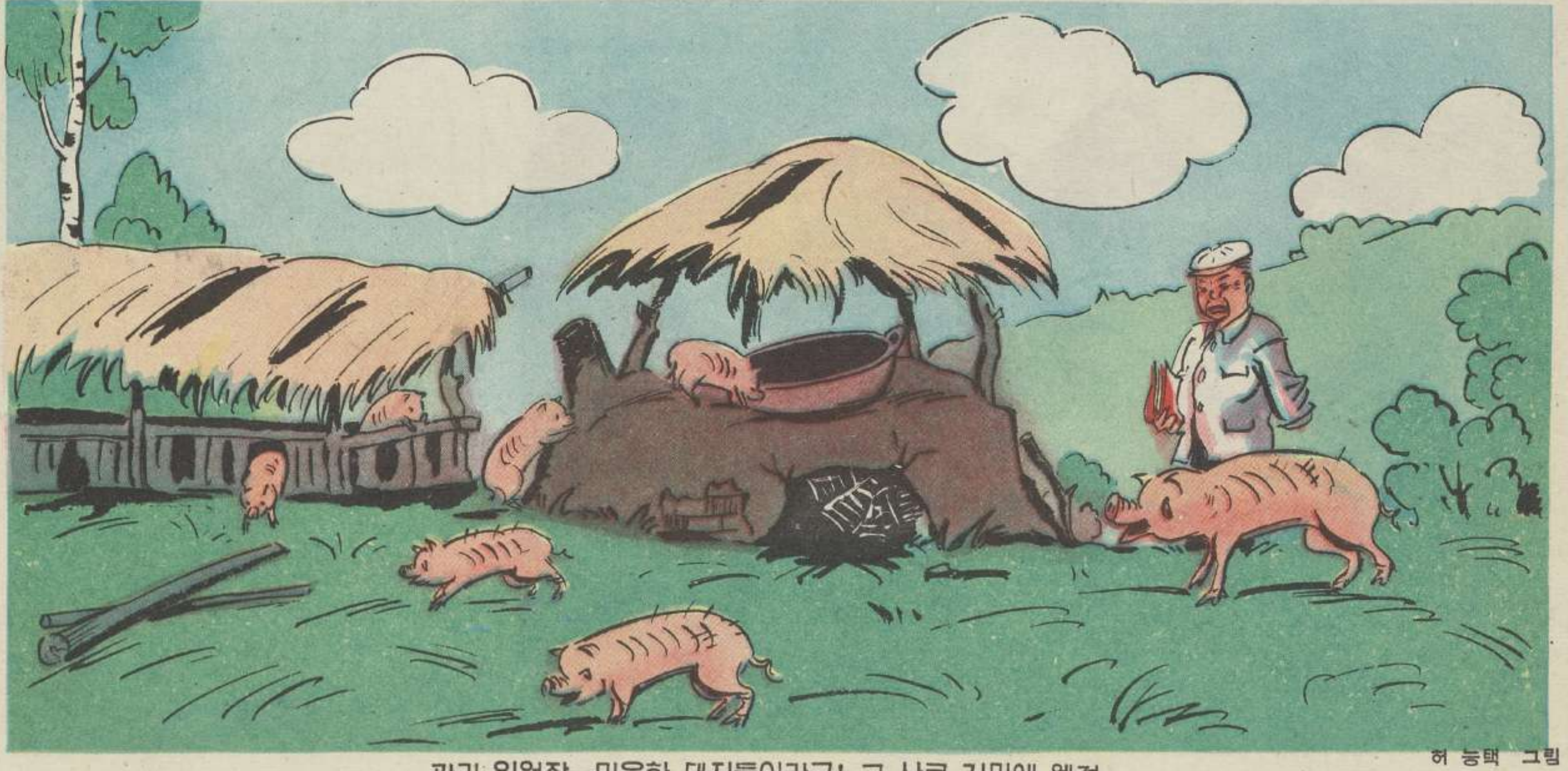
《못했네.》

《그래? 정당 반 톤도 못나는 데서 모든 것은 농사다 하고 당신들은 내몰았다구? 그 매마른 땅만 뚜져서 나온게 뭔가? 그러구 보니 자넨 이때까지 근시안이였군! 발밑만 보고 산은 못봤다니까, 그 고기와 돈이 쏟아져 나오는 산을 말이야.》

리 운봉

평북도 천마군 신시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지난 기간 사료를 확보해 놓지 않은 결과 돼지를 자신이 사료를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된 형편에 이르렀다.

우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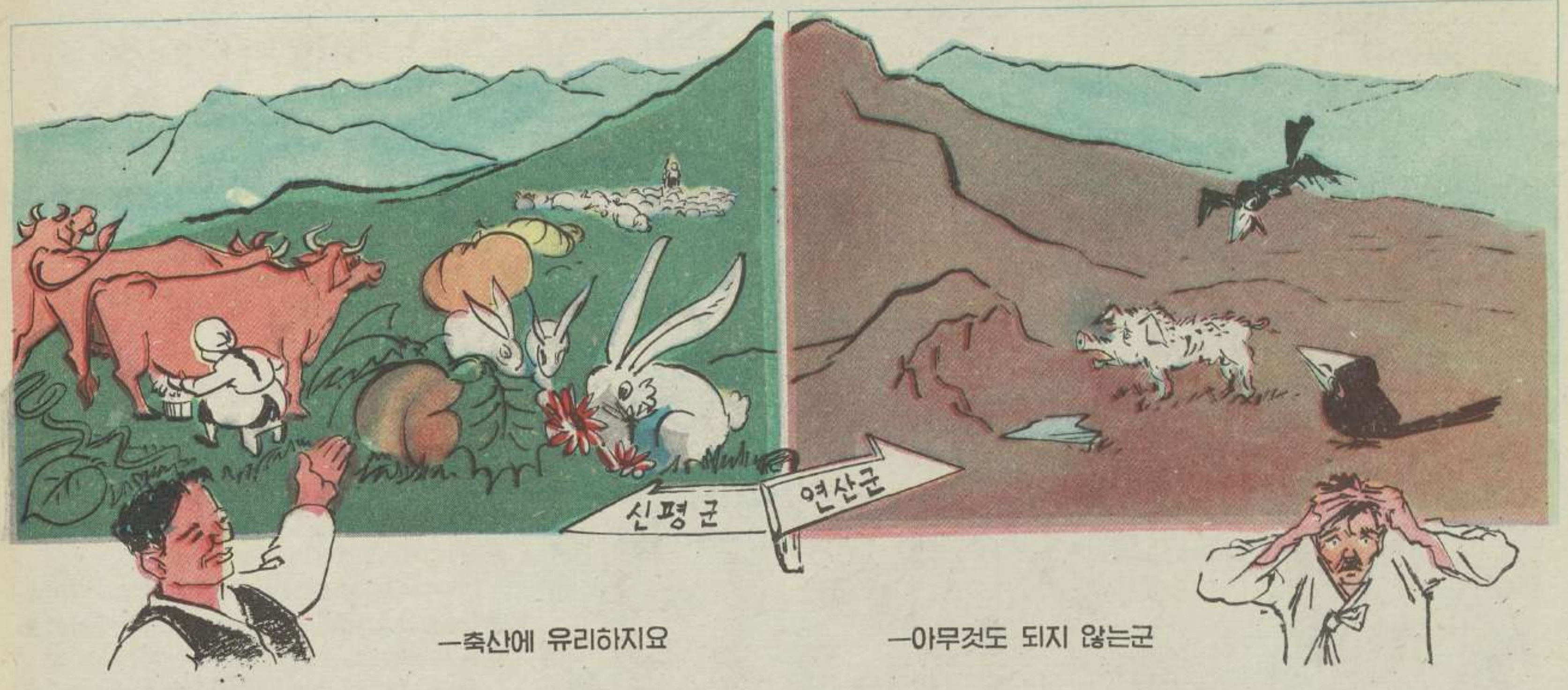


허 능택 그림

관리 위원장—미욱한 돼지들이라구! 그 사료 가마에 웬걸 먹을 것이 있겠다고들 그리노…

산이 많아서

조 명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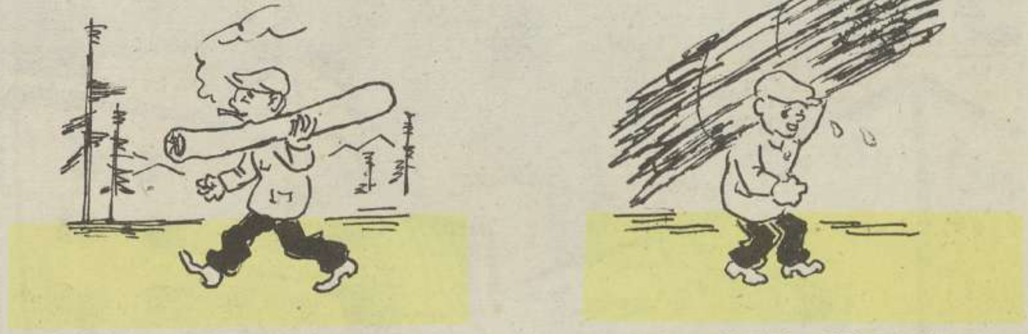


—축산에 유리하지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군

이런 일은 없는가

자강도 장강군 종남 림산 사업소 김 성배 그림



재목을 운반할 때

집으로 화목을 가져 갈 때

착각 — 평양시 중구역 굴원 식료 상점에서 있은 일—

미술 대학 송 시엽 그림

풍치 좋은 환경에서

조 명식 그림

—이제는 더욱 문화적인 생활을 하게 되였네

철 속에 앉아 철 걱정

농촌에 사는 청년들이 해주 세멘트 공장 견학을 하고 나와 하는 말이

《참으로 많기도 많군!》

《세멘트 공장인데 많을 수 밖에…》

《아니 세멘트도 많지만 철이 많단 말이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리해할만한 일이다.

×

한 때

《롱구대를 만들어야겠는데…》

《걱정할게 있소. 수리 공장, 보수 직장에 쌓인 것이 기둥'감인데—》

100미리도 넘을 굵다란 빠이프가 기둥으로 세워졌고 가름'대도 얼기설기 빠이프를 짤라서 산소로 붙여서

《이만하면 훌륭한 롱구'대지 든든수가 제일이야—》

그런가 하면 《기차 주의》《선로 주의》 표식은 철이래야 하는 줄로 아는 모양.

구호판도 철.

수리 공장으로 가는 다리도 철.

철도 인입선을 따라가면 여기저기 덩굴고 있는 레루 토막도 물론 철. 접수 뒤 바다'가에 덩굴고 있는 쌍봉대도 철.

우뚝우뚝 서 있는 철기둥도 철.

길가다 발에 결리는 것도 철.

그런데 이처럼 철'더미 속에 앉아서 보수 직장에서 걱정스레 하는 말이

《흡진 장치를 해야겠는데 철판이 곤난합니다》

김 상애

이름난 곳

로 철

송림시는 황해 제철소가 있는 곳. 강철 생산으로 이름난 공업 도시. 흔한 것이 쇠다.

즐비한 사택 마을 울바자도 쇠요, 여기 저기 서 있는 가두 게시판도 쇠다. 변소의 문, 창고의 지붕과 담벽, 민주 선전실의 천장들까지 쇠다.

제철소의 각 직장들에는 쇠로 만든 아취들이 있는데 제강 직장의 아취는 얼마나 크고 굉장했든지 여기를 처음 견학하러 왔던 사람이 《이게 용광로인가요?》하고 물었다는 일화까지도 있다.

아직도 사택의 지붕들, 운동 기구들, 창고들 기타 눈 가는 곳마다 강재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수있다.

앞으로 한달 동안에만도 1만톤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으리라고 한다.

송림시는 강철 생산지로서만 이름이 났을뿐 아니라 강철 랑비지로서도 이름이 나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헌병과 다이야

신 흥순

팡! 팡팡

권총 소리가 련거퍼 나자 달리던 화물 자동차가 갑자기 멎으며 뒤'바퀴 하나가 씨익! 하고 쪼그라진다.

《임마! 스라는데 왜 거냥 내 빼?》

달려 온 헌병이 운전수에게 눈을 부라리며 한마디 쏘아 붙이고는 차 바퀴들을 드려다 본다.

《음 그러믄 그렇지, 이 봐! 이 다이야들을 몽땅 다 빼!》

《다이야를요?》

《그래 유. 에스. 에이 자호가 박힌 군용 다이야는 무조건 회수하기로 됐어!》

《우리 쥔이 그러는데 이 다이야는 믿을만 헌 계통에서 사 온 거라던데요》

《믿을만 한데서? 히? 이렇게 군수 물자가 전탕 뒤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지금 군부에선 자동차를 세우게 됐단 말야! 잔소리 말구 어서 빼 내!》

《우리 쥔이 곧 올테니까 물어보면 알게 아닙니까? 헌병대장인가 누구한테서 바로 엊그제 구해다 낀 건데요》

《뭐시? 헌병대장?! 이 자식이 급해 맞으니까 막 찍어대는구나! 임마! 헌병대장이 자동차 다이야 장수야? 빼라면 빼게지 무슨 여러말이야?》

운전수는 할 수 없이 빵꾸난 것부터 빼기 시작한다.

잠시후 화물 자동차 주인이 왔다.

《헌병님!》

《이게 령감네 차요?》

《그럼이요. 이 다이야가 몽땅 엊그제 주신 그게 아닙니까? 내가 자동차 번호까지 대 드렸습죠?》

《번호를 일일히 어떻게 다 외워 둔단 말요? 원》

헌병은 엊그제 다이야 팔아 먹고 술까지 얻어 먹은 일이 생각 났던지 다소 어색해 한다.

《빵꾸 때 가지고 가자면 이 번 기차엔 이 물건 못실립니다요》

운전수는 빼여 낸 다이야 우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며 주인을 본다.

《그럼 어떡헌다? 이 번 차에 못실리면 큰 탈인데… 저어 헌병님, 새 것 하나 또 없을까요?》

《글쎄 있기야 있지만…》

《그러면 하나만 어떻게…》

자동차 주인은 돈을 꺼내 헌병의 호주머니에 넣어 주며 사정을 한다.

《저기 저 다이야 무데기에서 성헌걸루 하나 골라 가우!》

하고 헌병은 그쪽으로 가버린다.

운전수는 헌병의 뒤'모양을 흘겨보며 혼자 중얼거린다.

《개자식! 헌병인지 망헌병인지 하루라도 저따우 꼴 안보는 세상에서 살아 봤으면 한이 없겠다!》

류행어 만화사전

《유령 학교》

서울시 충무로 3가에서 《중앙 예술 학원》이라는 간판을 들고 나온 유령 학교는 학생을 모집하여 2천 6백만환이란 다액의 돈을 협잡해 먹고 하루의 수업도 하지 않고 행적을 감추었다.

《트렁크 감투》

《대용 객차》

백 인균 그림

평양시 동구역 대흥동
김 진호 그림

송 용남 그림

하느님의 이름으로

백 인균 그림

희더냐 검더냐?

남조선 주둔 제 8군 장교로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전근하게 된 헨리 중위는 미시시삐강'가의 고향에서 약 한 달 동안의 휴가를 보내게 되였다. 오래'만에 아들을 만나는 어머니는 중위가 조선에서 보낸 자기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를 매우 즐거워했다.

하루' 밤은 중위의 가지가지 《무훈담》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눈이 둥그래지며 물었다.

《소년을? 그래 몇에나 난 애였니?》

《열 두어 살 났을가요?!》

《어쩌자고 생소한 남의 나라에 가서 그런 말썽거리를 일쿠어 놓았니?》

《일없습니다. 조선 소년이니까요.》

《조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않느냐?》

《그러기에 꿩으로 잘못 알고 쐈다고 했거든요.》

《뭐? 꿩? 크기로나 모양으로나 꿩이 어디 사람과 비슷이나 하냐? 그런 말에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니?》

《속고 안속고가 문젠가요. 꿩으로 잘못 알고 쏜 거라고 제 8군 당국이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장단만 맞추면 되는 거지요.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 빨갱이라는 명목으로 체포하니까요.》

《오,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남조선에서의 조선 사람의 처지는 아메리카에서의 흑인의 처지와 같다는 말이구나! 그런데 네가 승급하는 데 그 일이 지장으로 되지 않느냐?》

《보룸 있는 일인걸요 뭐…》

며칠 후 헨리 중위는 엽총을 메고 사냥을 나갔는데, 땅검이 진 뒤에야 중위가 데리고 갔던 어린 하인 톰이 뛰여 들어 오면서 떠들석하게 아뢰였다.

《마님, 도련님이 큼직한 꿩을 쐈습니다.》

헨리 로부인은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 서며 되물었다.

《큼직한 꿩이라고?》

《예, 상당히 큰 겁니다.》

《오, 하느님 아버지시여……그래 희더냐 검더냐?》

조선에서 《꿩 사냥》에 맛을 붙인 아들이 흑인이나 쏘았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만일에 백인을 쐈다면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묻는 말이였다.

《마님두… 검은 꿩 흰 꿩이 어디 있습니까. 목과 꼬리는 검고 몸'뚱이는 빨간 숫놈입니다. 덜거기지요.》

잡은 꿩을 한 손에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면 헨리 중위는 어머니와 톰 사이의 대화를 듣고 곧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 차렸다.

중위는 말없이 빙그레 웃었다. 어머니도 얼굴의 주름'살을 펴면서 아들을 말끔히 바라 보며 간절히 부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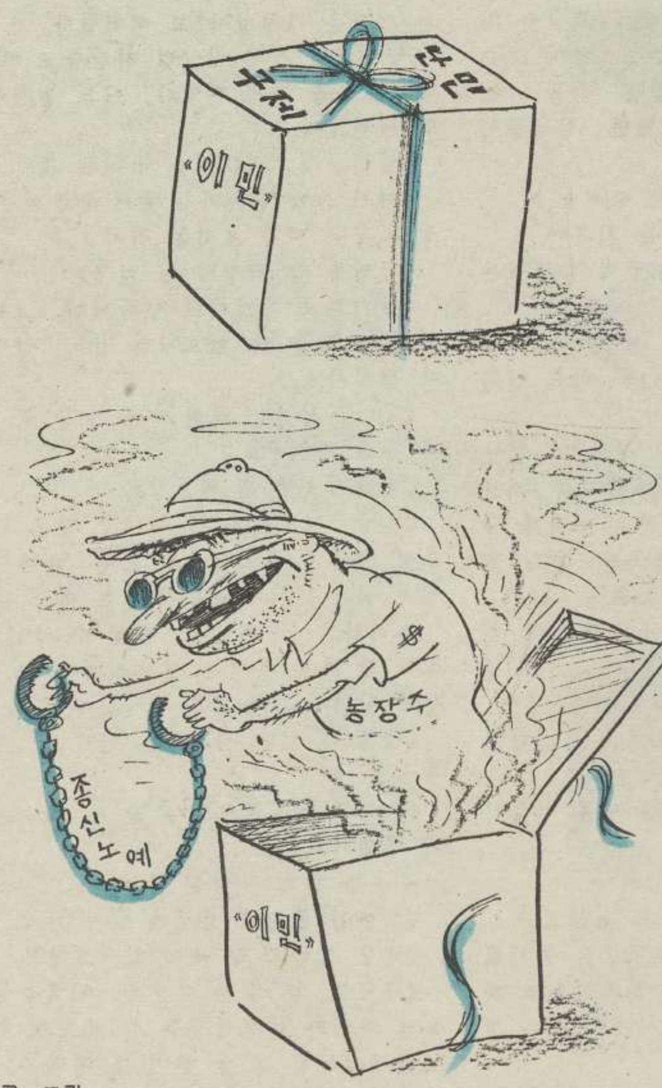
《얘야, 제발 흰 꿩만은 잡지 말아라!》

어머니로서도 아들이 사람의 피'맛을 본 승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하는 말이다.

미제의 침략 도구

원 광수 그림

명색 좋은 《난민 구제》



백 인균 그림

리 승만의《독자성》

리 승만—나는 항상 독자적 정치를 한다

미 제 —됐어 됐어 잘하는군 최 영근 그림

더는 참을 수 없다

조 명식 그림

살'길을 막는 자

유 황림

본서로 불리워 갔던 경찰 지서장은 거나하게 취해서 새벽녘에 돌아 오자 곧 비상 소집을 했다.

《에또—왜 인제야 모였어 엉? 어디 가서 쳐박혀 있다가 인제야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는거야 엉? 네놈들두 술집에 쳐박혀 있었지?! 누가 모를줄 알어?! 여봐, 그런데 지금이 대관절 어떤 때나 말야? 재일 포교들을 북조선으로 보내게 됐다는데 가만이 있을 수 있느냐 말야?!…》

뒤에 서 있던 순경이 옆의 박 순경 더러 소군거렸다.

《가만 있지 않으면 일본까지 가서 누굴 체포해 와야 한단 말인가?》

《못난 소리 말게. 저번에 쏘련의 인공 위성과 우주 로케트가 발사됐을 때는 뭐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서 모두 출동했었나!》

《그럼, 이번에도 하늘을 자주 쳐다 보는 자는 잡아 들이면 되겠구먼.》

《쉬—》

지서장이 고함을 친다.

《거기서 쑤군거리는 건 어느 놈이냐? 그런데 오늘은 마침 장날이거든…》

장사'군들이 장마당으로 모여 들었다. 그런데 장으로 들어 가는 사람은 뭐 두지만 거기서 나가려면 길목마다 지켜 서 있던 경찰과 테로단이 막아 섰다.

장에 사람들이 다 모이자 경찰은 국민 학교 마당으로 그들을 몰고 갔다. 《재일 포교 북송 반대 면민 대회》를 한다는 것이였다.

연단 우에서는 금시계'줄을 늘어뜨린 배뚱뚱이가 돼지 멱따는 소리 같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밑의 마당에서는 팔려 가는 돼지새끼가 살려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장마당에서 미진했던 흥정들이 한창 버러지고 있었다.

《그러지 말고 백환만 더 봐 주세요.》

한편에선 소금장수가 비명을 지른다.

《잠간만 저리 비키시오. 소금이 쏟아졌는데, 밟겠소. 저리 좀 비키라는데두…》

《거 마침 잘 됐군요. 저기 연단에서 하두 싱거운 소리를 하는데 소금이나 치면 간이 맞을려는지!》

맨 뒤에 서 있던 안악네는 장에서 팔아 보려고 잡아 가지고 왔던 메'비둘기를 그만 놓쳐 버렸다. 안악네는 《애개개 애개개…》하고 아쉬워했지만 메'비둘기는 살'길 찾았다고 푸드득 하늘로 날아 오른다.

연설하는 연단 우는 쳐다 보지도 않던 군중들이 모두 하늘을 쳐다 본다. 그 중 한 중년 남자가 한숨을 내쉬면서 중얼거린다.

《저 메'비둘기는 팔자 고쳤구나! 그립던 자기 집으로 돌아 가게 됐으니…》

그러자 군중 속에 끼여 있던 사복 경찰이 그의 팔을 끌어 잡았다.

《이봐, 방금 뭐라고 했어?》

《비둘기는 살'길이 생겼다고 했지요.》

《가만 있자, 임잔 북조선에서 온 놈이겠다! 그렇지, 재일 포교들이 북조선으로 가게 됐으니 살'길이 생겼단 말이지?! 가자 경찰서루…》

이렇게 진행된 《북송 반대 면민 대회》를 가리켜 이튿날 신문엔 《3만명 참집하여 일대 성황을 이루었다》고 떠버렸다.

장마당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북송 반대》 소동을 겪게 되였다. 어느 농가에 순경이 나타났다.

《임마, 뭘 때메 짐을 꾸리는 거야?》

《여기 그냥 살다가는 굶어 죽겠으니까 살'길을 찾아 떠나 보려는 거지요.》

《어디루 갈 작정이야, 엉?》

《어디라고 작정이나 있습니까, 그저 앉아서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정처 없이 떠나다 뿐이지요.》

《임마, 거짓말 허면 누가 모를 줄 알어?! 배 타러 가지?》

《배라니요? 웬 배요?》

《그냥 시치미를 뗄 테냐? 일본 가 있는 조선 사람은 북조선으로 보내 준다니까 그래서 일본으루 밀항을 하려는 속내 안야?!》

그리하여 이 농민은 떠날 수 없었다. 순경이 간 후에 부처는 새삼스러히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밤늦도록 속사겼다.

《일본 가 있던 사람들은 인젠 살 수가 생겼구먼…》

《우리두 북조선으로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는 함께 한숨을 내쉬였다.

《간단한 문젠데 쉽지가 않아서…》

《예? 간단히 갈 길이 있어요?》

《아니요. 리 승만 도당과 미국놈들만 내몰면 우리가 아무데루두 갈 필요가 없이 북조선에서처럼 잘 살 수 있을 텐데…》

광대들의 순회 공연

류 계환

김포 비행장에 몇 대의 비행기들이 번갈아 내려 앉더니 알숭달숭한 옷차림을 한 몇 패의 려객들을 내려 놓았다. 《아세아 반공 순회 합창단》—이것이 이 집단의 명칭이다. 그들 중에는 다리 떨어진 자도 있고 팔 떨어진 자도 있고 허리 부러진 자도 있다. 그들의 《반공 무훈》의 결과이다.

서울 원각사에 모인 합창대는 저마다 트렁크를 헤치고 나발을 꺼내 음을 고르기 시작했다.

순서에 따라 처음에 《추도곡》이 시작되고 (그들은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히틀러와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여 황천에 가 있는 이 합창대의 조직자이며 그 자신이 유명한 나발수인 존•포스터•덜레스씨를 추도했다.) 다음에 《반공 광상곡》이 연주되였다. 반주에 맞추어 《대한 공사》 사장 리 승만의 아리아가 시작되였다.

미국 식객 30년에 청춘은 어디 가고,
여든고개 넘는 이 몸, 황천'길을 재촉는가.
슬프고도 슬프도다, 이제는 늦었구나.
북진 소동도 날 살리긴 다 틀렸구나
오! 곡 정강씨! 이 일을 어찌면 좋소?

대만으로부터 온 곡 정강이 그 탄조를 받아 넘겨 읊조르되.

복덕방 《대만옥》에 모진 동풍 휘몰아쳐
지붕은 날아나고 서까래만 붙어 있네.
장개석 대인께서 분부하신 말씀 듣소.
노전뙈기 있거들랑 얻어 오라 하시였소.

시드니의 무역상 와이트씨가 일어섰다.

《실은 우리도 영 장사가 안돼서 죽을 지경이요, 아세아 여러 나라에 자유 시장을 확장하려 해도 동풍이 심해서 영 배를 붙일 수가 없군요.》

그러자 홍콩, 남부 월남, 비률빈, 타이에서 온 가수들이 련신 일어나 저마다 장사가 안된다느니, 그늘 밑에서만 살자니 기를 펼 수 없다느니, 이러다간 질식하고 말것 같다느니 하는 신세 타령을 부른다.

그 때 막 뒤에서 북소리가 났다. 미 국무성에서 파견된 리프맨씨의 《가락이 안맞는다》는 신호다.

합창은 5년간 외워 두어 맞추기 쉬운 《반공 타령》으로 다시 호흡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류큐에서 온 류행 가수의 곡에 맞추어 토이기 땐서 트레이버가 허리춤을 추는 가운데 마카오 곡예사가 무대에 나섰다.

《우리는 아세아의 핵심이다. 반공이다! 나가자!》

그는 들고 있던 나발통을 뒤집어 쓰고 서투른 재주를 넘겼다. 그러나 꼬꾸라져서 그의 앞'이가 몇 대 부러졌다.

막 뒤에서 북을 치면 국무성의 대변인은 할 수 없이 치던 북을 그만 두고 일동을 연회 장소로 끌고 갔다. 술이나 한잔씩 먹여서 기세를 도꾸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연회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언쟁이 벌어졌다. 저마다 《상좌》에 앉겠다고 자리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자리는 내가 먼저 차지했는데…》

《당신은 체면이 있지, 내 비록 지금은 이런 처지지만 우리 장 개석 대인은 6억 인민을 대표…》

《여보시오, 6억 인민으로부터는 밀려 나와 이제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까지 밀려 나오고 무슨 큰 소리를 하시오? 어서 자리를 비껴요!》

그러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벌써 술이 돌아 혀가 꼬부라진 대원들이 돈 타령을 하고 있다.

《여보. 올 때 수당은 얼마나 받았소?.》

《본 집에서는 못받고 미 국무성에서 좀 받았어요.》

《거 부럽군! 국무성은 내게 이 번 공연이 끝나면 보자구 주지 않던데… 내겐 기대를 별로 걸지 않는 모양이군….》

후에 료리집 접대원이 상을 치우는데 상에 있던 고려 도자기 한 쌍이 없다. 《수당》을 못받은 그 손님이 손수 그것을 해결한 셈인지…

지방 공연을 시켜서 사기를 도꿀 것이 요구되였다. 그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동래 온천까지 가서 한 탕 하고 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2만 여명 로동자들이 파업 기세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결국 부산행은 단념하고 경주를 한 바퀴 돌았다.

도중에 별일이 다 있었다. 누구는 밤에 려관에서 빠져 나와 사창굴에 가다가 도중에 미군을 만나 소지품을 털렸고, 또 누구는 거리에 나갔다가 돌팔매를 얻어 맞고 이마가 깨졌다.

그들은 서울에 돌아온 다음날 《국방군》묘지를 《참배》하였다. 무덤 우에는 패말이 박혀 있다. 까마귀 떼가 그 우를 날아 다닌다. 《국방 루사》들의 말로다. 그 누가 추도곡을 불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 갔다. 일동의 추도의 정은 저으기 공포의 정으로 변하여 갔다.

《우리도 결국 저 꼴이 되겠구나!.》

《참배》도 공연도 더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검은 그림자　　함남도 함주군 리 치렬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4534
발행 1959. 7. 11
(값 40 전)

이가 썩었다

최 영근 그림